

우리학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본다

Retrospects and Prospects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이 경 회 / 연세대 명예교수
Lee, Kyung-Hoi /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kyunghoi@yonsei.ac.kr

한국교육시설학회가 1993년 12월에 뜻을 같이하는 60여 명의 건축인 들과 교육학자, 교육행정가, 교육시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시설에 관한 다학제적연구를 목적으로 창립 된지 올해로 어언 20년이 된다. 그 동안 고 김 진 일 초대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단과 회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학회가 국내 우수한 학회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을 다함께 축하하며 기뻐해 마지않는 바이다.

당시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외적으로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의 전면적 개방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교육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설의 창출이 요청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산, 학, 연, 관 협동을 통하여 좋은 교육환경제공을 위한 교육시설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이 시급하던 때였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학회가 설립 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 하였다. 이제 20돌을 맞는 우리학회의 어제와 오늘을 잠시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학회발전에 대한 제언을 한다.

첫 번째 6년 요람기(1993~1999)

초대 김진일, 2대 이경희, 3대 유영철 회장 재임기간은 우리 학회의 요람기라 할 수 있다. 교육부 시설국의 유영철국장, 교황 지현국장, 민창기 전사무관 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건국대의 이호진교수, 단국대의 남정걸교수 등이 산파역이 되어 초대회장에 한양대의 고 김진일 명예교수님을 추대하면서 한국교육시설학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리학회가 설립되자 교육계, 산업계,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자로 부터 비상한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

만 학회살림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회원확충, 논문집발간, 예산확보, 각종학술행사준비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모든 임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지금도 못내 아쉽게 생각하는 일은 학교건축연구의 태두인 이호진교수와 교육학의 원로 남정걸교수 등 몇 분들이 우리학회의 발전방향과 의견이 달라서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것은 초창기 우리학회발전에 커다란 손실이었다. 그러나 교육환경연구원이 후일 재단법인으로 크게 발전하여 현재 국내 굴지의 교육환경연구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필자가 회장 재임하는 동안(1996. 4~1998. 4)에 학교시설 기본계획, 정밀안전 진단연구, 초등학교재건축 재건축 계획 설계를 비롯하여 포스코 강구조 연구소와 함께 철골조학교의 새로운 학교시설표준화연구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기준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신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연구책임자: 서울대 김진균교수, 공동연구자: 고려대 이한



1998.11월 교육시설학회 회의 후 임원들과 함께

선교수, 연세대 김병선교수, 평택대 민창기 교수)를 참여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기억이 새롭다. 특히 철골학교 보급을 위해 빈번하게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에 지어진 철골학교 현장 견학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1977년 11월에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향한 교육시설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처음으로 세종문화 회관에서 개최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21세기를 맞는 교육시설환경의 정보화 가반구축을 시도한바 있다. 동년 12월에는 우리학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되어 점차로 학회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이밖에 학회지 간행도 년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실용적 연구결과를 때마다 발표해서 회원 및 회원사 모두가 공유하게 하였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연구 활동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학회 본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이론과 실제라는 산지식의 지원체계를 갖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두 번째 6년 성장기(1999~2004)

4대 김진균회장, 5대 심우갑 회장, 6대 신범식 회장 재임기간을 우리 학회 성장기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중 학회는 유년기를 벗어나 학회다운 면모도 갖추고 21세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시설에 관한 학술심포지움” 개최를 시작으로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 학회지로 선정되었고 민간투자사업 BTL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하는 등 학술활동이 본격화 되고 학회의 회원수도 1,300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특기할만한 일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일본학교시설 답사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초. 중. 고등학교 시설답사와 일본 오세니아 초등교시설답사를 90명의 회원들과 관자들이 다녀옴으로서 회원들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고 회원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되었다. 2004년과 2005년도에도 선진 유럽 여러 나라의 각급학교 교육시설견학 행사가 이어져 각각 90여명과 43명이 참가하는 연례행사로 까지 발전되어 우리학회가 다른 학회들과 차별화되는 좋은 학회 활동으로 정착되었다.

세 번째 6년 성숙기(2008~2012)

7대 민창기회장, 8대 이상호회장, 9대 김승제 회장 재임 6

년간은 우리학회의 성숙기라 할 수 있다. 2006년 부터 2011년 까지 많은 회원들과 교육시설 담당자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등지 학교시설 견학을 다녀왔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각급 학교시설 설계수준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될 정도로 눈에 띄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제1회 교육시설공모전개최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3회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학교시설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학도들과 기성 건축가들에게도 새로운 학교시설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밖에 우리학회지가 2010년 10월에 한국연구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학회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쾌사라 할 수 있다. 이 여세를 몰아 2012년 12월에 제1회 교육시설 초대작가전을 주최한 것도 우리학회의 성숙한 모습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를 준비할 때(2013~)

제10대 서봉교 회장의 임기가 시작 된지도 1년이 지났고 회원도 금년 11월 현재 1600명에 이르는 중견 학회로 발전되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때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한다. 이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우리 학회도 새롭게 목표를 재정립하고 업무의 영역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개편과 그 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학회는 “더 좋은 교육환경 중심의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한 학술연구와 활동,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지속가능성 구현과 자원순환경제사회실현, 스마트 그린스쿨 보급, 현재 50%가 넘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의 리모델링, 교육복지확산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설개발 등 숭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한 학회사업의 확충과 목표의 재설정 시급하다. 또한 앞으로 10년 그리고 다시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글로벌 지속가능성 구현을 위해 구체적 실천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것인가?

첫째로, 이를 위해서는 학술연구와 사회적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회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학교시설은 건물에너지소비 측면에서 볼 때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이론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진단 프로그램개발, 학교시설의 패시브 디자인 매뉴얼보급, 각종 국제공인 녹색학교 건축기준개발, 노후학교건축물의 에너지 리트로 피드, CDM과 연관된 각종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 등 숭한 과제들이 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

학회 20주년 기획특집을 마무리 하며

한 관련을 맺고 각위원회에서 기술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 기술정보제공, 관련 산업계와의 공동연구추진, 국내외 현장견학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정보공유와 유대강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활발한 국제상호교류가 시급하다. 녹색학교건축기술, 스마트 그린 및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그린 스쿨 등을 연구하는 국내외 각 전문연구기관과 긴밀한 정보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어느 나라 어느 기관과도 협력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GREENBUILD, 캐나다의 GLOBE 2012, IGCC(International Green Code Council) 같은 국제공인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로, 이를 위해 학회논문집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빠른 기간 내에 영문학회지의 발간하여 우리 회원 논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언젠가는 SCI 논문집으로 등재되도록 중 단기계획이 필요하다.

끝으로 철저한 회원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열린 학회, 회원중심의 학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 회원 증강도 중요하지만, 기존회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학회행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학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전임 회장단, 이사와 임원들을 참여이사로 추대하여 중요한 안건들은 참여이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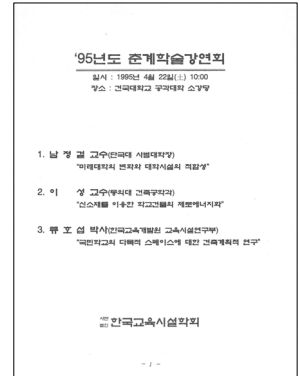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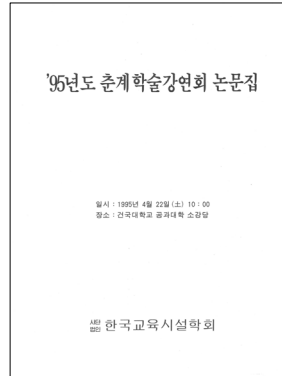
이제 우리 학회는,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유기체가 살아 숨 쉬는 지구의 지속가능성 구현 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인류의 번영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열린 교육시설전문 학회로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한다.



1993 창립총회



1995 총회 및 춘계학술강연회



1995 춘계학술발표회자료집



1993 발기인대회



1996 정기총회